

환율 올들어 7.3% 뚝박질...금융위기 때 상승폭 넘어섰다

슈퍼엔저 속 엔화값 10% '뚝'...수출시장 가격경쟁력 효과도 반감 중동전 확산 여부 기로...법정부장·차관 각급 협의체 가동 '초비상'

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서만 7%대 치솟으면서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당시를 웃도는 상승폭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한 차례씩 제한적인 공습을 주고받은 지난주에는 급등락 끝에 주간기준 0.5% 오름세로 마감한 것으로 고려하면, 지속적으로 원화의 평가절하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물가, 성장, 금리 관리에 중점을 뒀던 거시정책 운용에서도 환율 이슈가 전면에 부각되는 모양새다.

근본적으로는 글로벌 달러 강세에 따른 결과물이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유독 원화 가치의 낙폭이 큰 편이다. 한국경제의 대외 취약성이 반영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들어 7.3% 떨어진 원화 가치...IMF 위기 이후 최대폭=지난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

러 환율은 1382.2원에 거래를 마쳤다. 작년 말 종가(1288.0원)보다 7.3% 상승한 수치다.

연초 3개월여 기간에 7%를 뛰어넘는 급등세를 보인 것은 이례적이다.

1990년 3월 시장평균환율제(1997년 12월 자유변동환율제)가 도입된 이후로 같은 기간 최대 상승폭이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과 2009년에는 같은 기간 6.9%, 5.8%씩 상승한 바 있다. '외환위기 사태'가 불거진 1997년에도 1~4월 같은 기간 6% 안팎 상승했다.

다만, 그해 11월 중순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이후로 환율이 달러당 1000원 선에서 연말 2000원 부근으로 단기 폭등하고 연간으로도 100% 이상 치솟은 것을 고려하면 외환위기 사태 이후의 최대 상승폭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강달러 탓이지만...원화값, 2.5% 초과낙폭?

=원-달러 환율 상승은 근본적으로 달러화 강세에 따른 것이다.

달러 인덱스는 같은 기간 4.8% 상승했다.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등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다.

미국 경제가 '나홀로' 호황을 이어가면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진 탓이다. 통상 고금리는 통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력충돌에 이어 이스라엘-이란 대립까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친 것도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이런 달러 가치 상승분을 고려하더라도 원화 가치가 7% 넘게 떨어진 것은 2.5%가량 초과 낙폭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원화 가치 낙폭은 연준이 달러지수를 산출할 때 활용하는 주요 교역국 26개국 가운데 7번째로 높은 수치다.

한국보다 통화 가치가 더 크게 하락한 나라는 칠레(10.0%), 일본(9.8%), 스웨덴(9.0%), 스위스(8.5%), 브라질(8.1%), 아르헨티나(7.6%)였다.

유로존(3.7%), 영국(2.3%), 호주(5.8%) 등은 달러 대비 통화 가치가 상승했다.

◇'중동 확산' 여부에 촉각...정부 비상대응=외환 당국도 원화 가치 하락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판단 하에 초비상 상태다.

지난주 'IMF·세계은행(WB) 총회의' 참석차 미 워싱턴D.C.를 찾은 한-일 재무장관이 "원화와 엔화 통화 가치 급락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한-미-일 3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공동 메시지를 내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워싱턴D.C.에서 원-달러 환율 급변동에 대해 수차례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1일 "중동 사태가 확산하지 않는다면 추가 급등락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법정부장으로 각급 체계에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 기재 차관보 주재로 실물 및 금융부문 '관계 기관 컨퍼런스콜'을 통해 동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차관급 또는 장관급 회의로 격상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환율의 향배는 결국 강달러와 중동사태 추이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원-달러 환율이 최근 1400원선까지 급등하면서 달러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주요 은행 투자전문가들은 당분간 달러 강세가 지속되겠지만, 현재 환율 수준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것은 큰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최근 환율이 펀더멘탈보다 수급과 심리 등에 의해 과도하게 움직인 측면이 있고, 현재 환율 수준도 너무 높다는 이유에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연합뉴스

경제 불안에 국내 금 거래대금 '역대 최대'...한달새 2.4배 급증

현물가격 이달 들어 10.3% 급등

중동 위기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금 거래가 이달 들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국내 금 시장의 일평균 금 거래대금은 169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KRX 금 시장이 개장한 지난 2014년 3월 24일 이후 최대다. 또한 이는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68억6000만원)의 2.4배 수준이다.

종목별로 보면 이달 금 1kg 현물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61억6000만원, 미니 금 100g은 7억5000만원이다.

이달 일평균 금 거래량도 16만895g으로 전년(7만4137g)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

금 1kg 현물의 일평균 거래량은 15만3780g, 미니 금 100g은 7115g이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간 충돌로 지정학적 긴장이 커진 데다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 중국 금 수요 증가 등으로 국제 금값이 치솟자 금에 대한 수요가 더욱 몰리는 모양새다. 한국거래소(KRX) 금 시장에서 금 1kg 현물 가격은 이달 들어 10.3% 올랐으며, 미니 금 100g도 13.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5.6%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KRX 금 현물 지수를 기초 지수로 하는 'ACE KRX 금 현물 ETF'도 이달 들어 9.2% 오르는 등 금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도 고공행진 중이다.

중동 긴장으로 금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금 수요가 이탈하면서 상승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금값을 올릴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금값 상승세는 둔화할 수밖에 없다"며 "현 시점에서는 금보다 은이나 구리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실질금리가 하락 사이클로 진입하면서 은행에 있던 중국 개인 투자자들의 예금이 금으로 이동해 국제 금값이 상승했으나, 중국 제조업 경기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통상 경기 회복 시기에 산업형 수요가 많은 은이나 구리에 대한 선호도가 금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유럽인 사로잡은 '비스포크 시 콤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지난 16일부터 21일(현지시간)까지 개최된 주방 가전-가구 전시회 '유로쿠치나(EuroCucina) 2024'에 참가한 삼성전자가 AI 가전과 유럽 특화 빌트인 제품을 선보여 큰 관심을 받았다. 사진은 삼성전자 '유로쿠치나 2024'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이 올인원 세탁건조기인 '비스포크 시 콤보'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

광주경총 금융조찬 포럼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강연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양진석·취호원 회장)는 지난 19일 홀리데이인호텔 컨벤션홀에서 김정인 하이퍼라운지 대표를 초청해 1646회 금융조찬포럼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김 대표는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 대표는 데이터 플랫폼 및 분석 서비스 전문가로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상품, 프로세스, 사업 모델, 조직·문화의 혁신 과정으로, 시스템 구축이 아닌 경영 방식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하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융합산업진흥회 '제1회 광융합산업 포럼'

시장·기술동향 정보 기업과 공유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는 지난 19일 '제1회 광융합산업 진흥 포럼'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진흥회가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 기관'으로서 산업 관련 통계, 정책, 산업생태계 고도화지원사업 등을 발굴해 대정부 정책 제안을 하는 등의 전담기관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진흥회 주요사업과 광융합 연구조합 운영방안에 대한 소개와 광융합산업의 시장 및 기술 동향 정보를 기업과 함께 공유했다. 또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진흥회는 포럼을 기업 중심의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의 장'으로 매월 정례화하고 정부사업 발굴, 대정부 정책제안의 주요 창구로 활용, 수요-공급기업, 기업-전문가와의 만남을 활성화해 갈 계획이다.

김동근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광융합산업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한다.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면서 "정례화 개최를 통해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기업 중심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마련, 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 등 광융합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광융합산업 전담기관'으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자원재순환 캠페인 '나비 페스타'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임직원 자원재순환 캠페인 '나비(나비+비움) 페스타'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나비페스타'는 광주은행이 새롭게 펼치는 ESG캠페인 활동의 일환으로 '나눔을 위한 비움 실천'이라는 뜻을 담았다.

광주은행은 오는 26일까지 본점 1층 '광주은행 아트홀'에서 접수 및 전시를 진행하며, 참여 임직원들은 자택 또는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도서·장난감 등 물품들을 기부한다.

기부를 통해 모인 물품들은 오는 5월 1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되는 예코 플라마켓 '나비페스타'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또 광주은행 자체 스포츠단 '텐텐(Ten Ten)

양공단'과 '비츠로베드민턴단'의 기부 물품을 모은 '스타샵'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준비된 '놀이샵'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을 비롯한 임원, 스포츠 스타 등이 기증한 특별한 물품들은 '나비 명품샵'에서 경매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은 (재)아름다운가게를 통해 지역 내 다자녀 가구 등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광수 광주은행 브랜드전략부장은 "이번 행사는 광주은행 임직원들이 기부한 물품들을 통해 자원재순환에 동참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를 지역에 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산업단지공단 광주본부 광산함평사무소 개소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황상현)는 지난 18일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 (사)광주산학융합원에서 광산함평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빛그린국가산업단지는 현재 126개 기업이 입주 중인데, 입주 기업들은 공장설립 등의 민원처리를 위해 광주시 북구의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광산함평사무소 개소를 통해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속한 현장민원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산단공은 ▲미래자동차 관련 엔지니어링 및 협력기업 유치 ▲미래자동차관련 R&D연계 ▲산단단지 디지털 전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김민석 기자 mskim@

■ 로도복권 (제 1116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5	16	17	25	30	31	32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695,000,238	10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39,400,589	114
3	5개 숫자일치					1,550,991	2,896
4	4개 숫자일치					50,000	145,548
5	3개 숫자일치					5,000	2,444,108